

2017년 5월 27일, 성산읍 신양리 정만순 씨 댁, 송정희 조사.
정만순(여, 1925년생, 성산읍 신양리)

- 줄거리: 도복 입은 어른이 난산리에서 고성리로 말을 타고 오는 데 어떤 여자가 같이 가자고 태워달라고 한다. 어른은 여자를 태워주고는 도복 끈으로 그 여자를 단단히 묶고 고성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엉덩이를 만져 보니 털이 난 것을 보고 여우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우리 아부지네가. 우리 어머니가 옛말. 아부지가 골앗인지 어머니가 골앗인지사
옛날 옛말에, 이제, 난산리서 고성더레 말을 타고 오는데, 그 옛말 들은 말이야.
오는데

“아이고 아저씨 나 같이 가게. 태워다 주세요.”

겅 허멍 허난, 말 우터레 탁 올라탄 것이 여우라난. 그 도복 입고 헌 옛날엔 어디
가젠 큰 어른덜 지날 땐 말 타민 도복 입고 행 지난 거라예. 겐
‘이상하다. 뭐 여우가 아닌가?’

해서, 강알을 영 어름시니깐 그 여우털이 북삿허게 문직아젖어.

‘아. 요거 여우로구나.’

그래서 그 도복 끈으로 꽉 쳐메갓고, 물을 탕 고성더레 막 달려오는디, 옛말 들은
말이야. 우리 모친이. 막 달려오라가니깐 고성 가름??장 들어오라 가는디. 이제 물
이 들어오라가니깐 개가 강강 주꾸난, 막 그 도복을 다 뜯고 때어정 돌아낫전 허는
옛말 들어난 거 잇고.

그거 우리가 확실히 그런 말을 곤더라고. [웃음]

- 핵심어 : 물, 여우, 도복, 끈, 개, 난산리, 어른